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과 지역사회활동참여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양순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국문요약

언어는 문화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통합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참여활동 또한 이민자를 포함한 한 개인의 정체성을 신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들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경험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한국 농촌사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인식한 자신들의 공동체 의식 수준에 한국어 능력 수준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 경험과 같은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려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전국 43개 지역에서 조사된 35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어 능력수준 변인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인식한 그들의 공동체의식 수준에 중요하고 의미있게 작용하는 반면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 변인은 그것에 대해 매개적인 효과만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능력수준변인은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 변인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여성들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기 위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0923401201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양순미) 전화: 063-238-2646; email: ysm@korea.kr
565-851)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해서 지역사회활동이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본 연구결과에 토대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과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는 몇가지 방안들이 결론 및 제언부분에 제안되어 있다.

주요어: 공동체 의식, 언어, 결혼이민여성, 농촌, 지역사회활동

1. 서론

우리사회에 후기 산업화 및 현대화 현상이 깊어져 대가족이나 마을 등의 전통적 공동체가 점차 사라지고 의무적 공동체 활동에의 참여 대신 자발적 참여의 형식이 두드러지면서, 공동체적인 정체감이나 공동체 의식도 변화의 과정을 겪는 가운데 의식의 변화가 가족을 비롯한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정진경, 1999; 임희섭, 1987) 부조리한 현상이 빈발하여 왔다. 또한 우리사회가 지닌 관념으로서의 가치관은 여전히 전통적인 테두리를 지키고자 하나 개인행동의 원동력으로서의 가치관은 서구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이중적인 구도속에서 농촌 공동체가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양순미, 2001).

더욱이 2005년 이후 농촌이 급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구성원 개개인이 지닌 개인 및 집단주의적 성향이 한층 다변화되고 가속화되어(양순미, 2012), 농촌 공동체 문화는 그 이전 보다 이질성이 강하고 연대성이 약화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이 새로운 시민적 공동체 의식으로 내면화되거나 안착되지 못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의 결핍현상으로 까지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농촌공동체가 당면한 다문화현상이 농촌의 공동

체 의식을 약화시키거나 정체성을 훼손하고 결속력을 약화시키면서 문화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 및 우려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만일 실제로 이러한 갈등구조가 외현화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결혼이민여성에게 훨씬 가중 될 것이며 이들이 희생양의 삼각구도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이 주류사회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에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돕는 일은 우리사회가 감당해야할 임무라고 생각한다(양순미, 2006).

다행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서 한편으로 언어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일례로 윤인진과 김은비(2012)는 언어가 종족성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하나의 종족집단의 언어동화는 그 집단의 사회문화적 동화의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라고 주장하였다. 이민사회의 언어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은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의 직장을 얻거나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Frank & Matthijs, 2009), 문화간 소통과 이해를 촉진하고, 갈등을 해소해서 사회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권순희, 2009)고 주장되고 있다. 또한 언어는 한 개인의 정체성 구축과 강화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정체성이 외현화 되는 것으로 주장(양철준, 2005)하고 있어서, 언어사용과 태도에 관한 연구는 이민자들의 정체성 연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 기초해 농촌 결혼이민여성 및 지역민들이 인식하는 이민사회의 언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경험적인 연구에 의하면, 농촌결혼이민여성들의 67.2%, 농촌지역민들의 75.5%가 주류사회인 한국어에 동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져(양순미, 2013; 연합뉴스, 2014) 이민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이는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주류사회의 주민이든 이민자이든 이

민자들이 주류사회의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정도가 그들의 사회문화적 적응 정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권복순, 2009)로 인식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며, 단순히 의미전달의 수단 이상의 사회문화적 용도, 즉 친교적 기능이나 사회문화적인 통합의 기능을 내포(김주관, 2007, 2008)하기 때문¹⁾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문화사회의 공동체의식의 결핍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적 방안으로 지역사회참여활동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운동적인 공동체 문화운동이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김경준(1998)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 행사 등의 공동체 활동은 그들의 공동체 의식형성을 위한 매개체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Berry(1997)에 의하면 이민자들의 주류사회와의 관계형성, 즉 주류사회의 참여나 교류 등은 그들의 문화적응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사회참여나 교류가 활발한 경우 사회통합 및 적응이 원활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상호관계 및 교환이 사회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사회화가 촉진된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맥락에 기초해 볼 때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있어서 한국어 능력과 사회참여는 그들이 거주하는 주류사회의 공동체 의식 형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규명한 연구들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경험적이고 실증적으로 규명해 농촌 다문화사회를 통합하는 정책기반을 다지는 연구자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1) 사피어-워프 가설(Sapir-Whorf hypothesis)에 따른 언어결정론에 의하면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상이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이한 사고체계를 갖게 된다(김주관,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과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이 그들의 공동체 의식 수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종속변인을 공동체 의식으로 설정하여 접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이 인간이 자신이 소속한 내집단에 대해 지니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McMillan & Chavis, 1986)으로서, 개인과 사회적 구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단순히 지역성, 집합적 성격을 의미하기 보다 '함께' 라는 정서적 측면을 함축하며(Mannarini & Fedi, 2009)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 연대감 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체 의식은 단순히 적응의 의미 이상을 내포하며 한 개인의 정체성 및 시민적 자질을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들의 사회통합 및 정체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는 공동체의식에 그들의 한국어능력 및 사회참여활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2. 선행연구 고찰 및 이론적 배경

2.1. 공동체 의식의 개념변화 및 이론적 관점

현대사회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시민의 자질함양에 필요한 중요한 항목으로 지적하면서 시민이 겸비해야 할 기본적인 자질로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 의식은 각 개인이 자신이 소속한 내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를 의미하며(최영아, 2005; McMillan & Chavis, 1986).

개인과 사회적 구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초기에 Hillery(1955)는 공동체를 일정한 지리적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집단으로 보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로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 연대감을 제시하였다(이혜영, 1997, 재인용). 그러나 연구 중반기에 Sarason(1977)은 공동체 의식의 기본적 성격을 다른 사람과의 유사성 인식, 다른 사람과의 상호의존성의 인정, 그들로부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하거나 주는 것에 의해 상호의존성을 유지하려는 의지, 보다 큰 의존할 만한 그리고 안정된 구조의 부분으로의 느낌으로 정의하였다(Obst & Smith, 2002, 재인용). 즉 Sarason은 공동체의식의 개념에 지리적 요소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관계 및 조직의 개념을 강조하였다(Mannarini & Fedi, 2009). 이어 후기 산업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은 단순히 지역성, 집합적 성격을 의미하기 보다 ‘함께’ 라는 정서적 측면을 함축하며(Mannarini & Fedi, 2009),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 연대감 등을 보다 강하게 내포하는 개념으로 변화하여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변화 추이는 우리사회의 공동체 의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은 혈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하여 강한 문화적 배경 및 언어, 풍습, 생활습관 등이 범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되면서 우리의 정신적 기초로서 작용하여왔다(신승국, 1994). 그러나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해 대가족이나 마을 등의 전통적인 공동체가 점차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조직에 참여하면서 자발적 공동체 활동에의 참여가 특징적인 생활양식으로 변화하였다(정진경, 1999). 또한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은 동질성에 기초한 연대의식·혈연, 지연처럼 연고에 기초를 둔 친족의식·마을 의식과 같은 전통적인 것으로

부터 공공정신에 기초를 둔 시민적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과정에 있는 한국인의 공동체의식은 아직은 마을의식의 성격과 시민의식의 성격을 가진 요소들이 중복된 이중구조로서 표출되기도 하며, 전통적인 마을의식으로서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고 새로운 시민적 공동체의식은 아직도 내면화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일반적인 공동체 의식의 결핍현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임희섭, 1987).

한편 공동체 의식에 대한 관점은 사회심리학적인 접근, 지역사회 운동적인 접근, 지역사회계획적인 접근 이론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중 지역사회운동적인 접근에 포함되는 공동체 문화활동은 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문화활동에서 제시하는 활동의 핵심은 공동체의 교육활동에 주어지고 있는데, 이는 교육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구성원들간의 상호관계와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공동의 문제와 목표, 공동의 이해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유도하는 성격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이 아무리 대중적 형태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각 개인의 단위에서 달성된다는 점에서 교육이 의도한 목적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취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 공동체 문화활동은 무엇보다도 학습사회를 추구하는 지역공동체 교육활동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공동체 문화활동은 모든 국민에게 학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학습이 이루어지는 지역공동체로서의 학습사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학습사회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독특한 잠재력을 지닌 학습공동체의 성격을 지닌다. 지역공동체 학습활동은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전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철학적 개념으로 작용하며, 긍정적인 지역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생활을 개선

하여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 문화활동은 나 자신은 물론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계속적이고 발전적인 비전과 자신의 능력과 자질, 이웃과 함께하는 인식에 대하여 점증적인 희망을 주는 주민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김경준, 1998).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행사와 같은 공동체 문화활동, 즉 지역사회활동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농촌공동체에서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2. 공동체 의식과 언어능력, 지역사회활동 참여와의 관계

언어는 인간정신을 구성하는 개개 관념들의 내용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각, 즉 관념들을 상호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매체이다. 인간은 기호적 수단이자 상징체계인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자신이 규정되는 경험을 부단히 반복한다. 특정 공동체에 소속되어있는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신념 체계와 사고방식은 주로 언어를 통해 전달되고 강화되며, 이것은 동시에 구성원들의 행태로 이어진다. 이는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한 개인에 의해 만들어낸 사적인 기호가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제도화된 것으로서 특정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공동체적 도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언어는 문화의식을 내포하고 있으며, 문화의식화 또는 문화사회화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유수연, 2004), 언어교육은 문화의식화의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언어는 종족성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한 종족집단의 언어동화는 그 집단의 사회문화적 동화의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로 여겨져 왔다(윤인진과 김은비, 2012). Taylor(1992) 등은 공동체의식이 정체성의 기반으로 제시하는 공동체의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체의 전통이 적절치 못할 때 그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하여 자기 전통의 틀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그것과 다른 틀을 성찰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정진경, 1999, 재인용), 이러한 주장을 통해 공동체의식 형성에 언어가 중요하게 연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민자 공동체 집단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언어사용과 태도에 관한 고찰인데, 이는 언어가 정체성의 구축과 강화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하여 정체성을 외현시키기 때문이다(양철준, 2005). 실제로 Frank와 Matthijs(2009)에 의하면 이민자들의 언어능숙은 경제적 성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언어사용은 문화적응과 보다 더 관련이 있으며, 김현주 등(1997)에 의하면 외국인들의 한국어 능력은 외국인의 문화적응과 사회적응 기여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다른 한편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활동 참여와의 관계에 대해 河村雲雨(1985)는 일정한 지역에서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신변의 일상적 차원의 일들에 관하여 공감, 합의, 연대하고 자주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의식이 형성된다(김경준, 1998, 재인용)고 하였다. 은지용(2002)은 봉사활동자체만으로는 공동체의식 형성에 필요한 교육적 효과가 없으며,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위해서는 반성경험을 통해 봉사활동을 유의미한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학습과정이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활동 그 자체보다 활동에 관여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Rousseau는 참

여과정을 통하여 책임있는 사회적, 정치적 행동이 개발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Mill은 참여를 일종의 공익학교로 보았으며 참여를 통해 시민의식과 윤리성 및 지적능력의 발달이 가능하다고 하였다(이승중, 1993, 재인용).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농촌 남성과 결혼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여성이다. 이들 출신국은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상대적 비율이 높은 순서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다. 조사는 8월 20일 부터 9월 10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계통추출에 의해 선정된 전국 187개 농촌생활지표 조사마을중 전국 9개도 43개 시·군 43개 마을을 재계통추출하여 해당마을과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총 396명을 조사하였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자료를 이용해서 43개 마을에 대한 농촌생활지표조사 현지 모니터들이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필리핀인 결혼이민여성, 베트남인 결혼이민여성, 캄보디아인 결혼이민여성은 각각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록하는 식으로 조사하였다.

3.2. 척도

3.2.1. 공동체 의식 척도

본 연구에서 이용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는 척도는 정진경(1999)의 척도²⁾로써, 이 척도 중 타당성이 유의미하지 않은 권위적 집단주의와 관련된 하위영역과 변별력이 낮은 문항은 제외하고 친밀성과 소속감(예 : 나는 내가 속한 집단속에서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느낀다), 조화와 단결(예: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발적 참여 및 의사표현(예: 내가 속한 집단에서 갖는 모임은 꼭 참석한다), 동일시와 공과공유(예: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 마치 나의 책임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자율성과 공공의식(예: 우리의 공공기물을 내 것처럼 소중히 다룬다)의 5개 영역별로 각 3문항씩 총 15문항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부터 '정말 그렇다(5)'까지 5점 Likert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각 하위영역별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공동체 의식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 .91이었으며, 친밀성/소속감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는 .84, 조화/단결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는 .72, 자발적 참여/의사표현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는 .66, 동일시/공과공유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는 .68, 자율성/공공의식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는 .65 수준으로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³⁾

2) 이기범(1997)은 공동체 의식에 역행하는 집단주의적 특성들로 배타성과 폐쇄성, 집단의 기준에 대한 개인의 복종, 무조건적인 동조, 위계를 중시하는 권위주의 사고 방식 등을 지적하였다. 정진경(1999)은 공동체 의식 척도가 포함해야 하는 하위요인들에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반영되는 것을 경계하였다고 한다.

3) 사회과학 데이터의 경우 보통 0.7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김충련, 1993).

3.2.2. 한국어 능력 수준과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 여부 측정 척도

한국어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양순미, 최규홍과 강경하(2009)에서 이용된 척도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여성이 인지하는 자신의 총체적인 한국어 능력 수준을 단일문항으로 하하(1) 수준에서 부터 상상(6) 수준까지 6점 Likert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는 단일문항으로서 학습단체, 봉사, 교육 등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여부를 명목형으로 예, 아니오에 응답하도록 질문하였다.

3.2.3. 기타 척도

생활수준은 양순미(2001)의 척도를 이용해서 하하(1)에서 부터 상상(6)까지 6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기타 연령, 학력, 동거하는 가족원 등은 양순미(2001)의 척도를 이용하여 개방형으로 질문·활용하였는데, 학력은 개방형으로 작성된 것을 초등학교 졸업(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전문대학 졸업(4), 대학교 졸업 이상(5)으로 재조합하고 서열화하여 활용하였다.

3.3. 자료의 분석

총 396명이 조사되었으나 미응답이 많아 분석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위에서 제시한 5개 출신국 이외의 결혼이민여성이 응답한 자료는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중국인 결혼이민여성 69명, 일본인 결혼이민여성 67명, 필리핀인 결혼이민여성 86명, 베트남인 결혼이민여성 108명, 캄보디아인 결혼이민여성 26명 등 총 356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SAS 9.2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ANOVA, t-test, 카이자승 검증, 위계적인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등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별 평균 거주기간은 일본 149.67개월, 중국 106.22개월, 필리핀 94.54개월, 베트남 49.89개월, 캄보디아 46.24개월이었다. 결혼이민여성의 평균 연령은 일본 44.26세, 중국 38.15세, 필리핀 34.37세, 베트남 26.80세, 캄보디아 26.73세이었다. 이들과 남편과의 평균 연령차이는 일본이 약 2.8세로서 가장 적은 반면 캄보디아가 약 17.2세로서 가장 컸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중국·일본·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선행연구한 결과(양순미, 2006)와 유사한 양상으로써 농촌지역의 중년기 국내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차이가 약 3세라는 점(양순미·정현숙, 2005; 양순미·유영주, 2002)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필리핀 출신의 다문화 부부는 비교적 높은 연령 차이를 보이며,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우 이러한 연령차이가 보다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과 필리핀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은 전문대학을 중퇴한 수준으로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수준인 한국인 남편의 학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거의 중학교를 졸업한 수준이며 한국인 남편들의 학력 수준과 유사하거나 낮았다. 이를 농촌지역의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아내와 남편의 평균 학력수준을 비교한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양순미, 2001),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편들은 농촌지역의 일반 중년기 가족의 남편들과 학력수준이 유사한 반면 결혼이민여성들의 학력은 평균 중졸수준인 한국 농촌의 일반 중년기 가족의 아내들의 학력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결혼이민여성들이 인지한 자신들의 가족의 생활수준은 캄보디아가 3.38로써 가장 높은 반면 베트남은 3.10으로써 가장 낮았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의 수는 일본이 4.55명, 필리핀이 4.06명, 베트남이 3.93명, 중국이 3.77명, 캄보디아 3.62명 수준이었다(표 1).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출신국가	내용	연령		학력	
		결혼이민자	남편	결혼이민자	남편
		M(S.D.)	M(S.D.)	M(S.D.)	M(S.D.)
	중국(n=69)	38.15(8.15)	46.94(7.85)	2.77(1.05)	2.86(0.83)
	일본(n=67)	44.26(5.50)	47.09(5.28)	3.66(0.92)	2.88(1.18)
	필리핀(n=86)	34.37(7.15)	45.38(5.47)	3.81(1.22)	2.86(1.11)
	베트남(n=108)	26.80(3.82)	43.43(4.56)	2.41(0.93)	2.93(0.91)
	캄보디아(n=26)	26.73(3.09)	43.96(4.90)	2.43(0.95)	2.83(0.92)
	F값	104.19***	6.17***	28.65***	0.09
출신국가	내용	거주기간	생활수준	가족원 수	
		M(S.D.)	M(S.D.)	M(S.D.)	
			중국(n=69)	106.22(54.78)	
	일본(n=67)	149.67(65.85)	3.26(0.97)	4.55(1.42)	
	필리핀(n=86)	94.54(43.54)	3.22(0.93)	4.06(1.23)	
	베트남(n=108)	49.89(26.08)	3.10(1.14)	3.93(1.37)	
	캄보디아(n=26)	46.24(23.65)	3.38(0.64)	3.62(1.24)	
	F값	56.08***	0.62	3.92**	

p<.01, *p<.001

4.2.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이 인식한 공동체의식 수준 및 관련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

4.2.1.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 및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정도

〈표 2〉에 의하면 조사에 응답한 결혼이민여성들의 65.2%가 자원봉

사, 교육 등의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양순미 등(2009)에서 밝혀진 73.2%보다 다소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가 학습단체, 봉사, 교육 등에 참여해 본 경험여부를 명목형으로 질문하는 형식인 반면 양순미 등(2009)에서 사용된 척도는 지역사회활동의 내용 및 유형을 제시한 뒤 경험한 활동을 개방형으로 체크하도록 하여 분석과정에서 지역사회활동경험 여부 변수로 이를 재구성하여 이용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해석한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출신국별 지역사회활동 참여수준은 일본이 가장 높은 반면 베트남이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수준은 총점 6.0점중 평균 3.47점 수준이었으며, 출신국별 한국어 능력수준은 중국이 가장 높은 반면 베트남이 가장 낮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2).

〈표 2〉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이 인식한 한국어 능력수준과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

변인 출신국	한국어 능력 수준 M(S.D.)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		
		있다 n(%)	없다 n(%)	계 n(%)
중국	4.20(1.23)	41(61.2)	26(38.8)	67(19.1)
일본	3.87(0.92)	61(91.0)	6(9.0)	67(19.1)
필리핀	3.27(1.00)	56(66.7)	28(33.3)	84(23.9)
베트남	2.99(1.07)	54(50.0)	54(50.0)	108(30.8)
캄보디아	3.12(1.03)	17(68.0)	8(32.0)	25(7.1)
계	3.47(1.15)	229(65.2)	122(34.8)	351(100)
F 값	17.47***	X2	31.38***	

*** $p<.001$

4.2.2. 농촌결혼이민여성들의 출신국별 공동체 의식 수준

〈표 3〉에 의하면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이 인식한 자신의 공동체 의식 수준은 총점 75점중 평균 51.08점 수준이었는데, 결혼이민여성들의 출신국별로 공동체 의식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가장 높은 반면 일본이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5개 하위영역중 친밀성/소속감 영역, 자발적 참여/의사표현 영역, 동일시/공과공유 영역의 공동체 의식은 일본이 가장 낮았으며, 조화/단결 영역의 공동체 의식은 필리핀이, 자율성/공공의식 영역의 공동체 의식은 캄보디아가 가장 낮았다. 이와 반면에 5개 모든 영역에서 중국은 가장 높은 공동체 의식 수준을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모두 $p=.05 \sim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3).

〈표 3〉 출신국별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이 인식한 공동체 의식 수준

하위영역	공동체 의식	하위영역별 공동체 의식				
		친밀성/소속감	조화/단결	자발적참여/의사표현	동일시/공과공유	자율성/공공의식
출신국	M(S.D.)	M(S.D.)	M(S.D.)	M(S.D.)	M(S.D.)	M(S.D.)
중국	53.68(6.40)	10.28(1.77)	12.06(1.25)	9.96(1.86)	10.16(1.95)	11.23(1.51)
일본	49.76(6.88)	9.15(1.79)	11.55(1.40)	8.81(2.11)	9.36(1.93)	10.90(1.51)
필리핀	50.92(7.74)	10.06(1.95)	10.94(1.86)	9.58(2.04)	9.80(1.76)	10.54(1.61)
베트남	50.58(8.58)	9.83(2.28)	11.50(1.74)	9.33(2.33)	9.39(1.85)	10.53(1.90)
캄보디아	50.12(8.39)	9.62(2.12)	11.42(2.18)	9.31(2.05)	9.38(2.00)	10.38(1.75)
F값	2.70*	3.13**	4.37***	2.71*	2.46*	2.66*

* $p<.05$ ** $p<.01$ *** $p<.001$

이러한 현상은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대부분이 조선족으로 구성된 중국인 결혼이민여성들은 문화유사성과 선형적으로 내재된 한국어 능력

수준이 다른 출신국의 결혼이민여성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우리 농촌 사회에서 문화의식화 및 문화사회화(유수연, 2004)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서 비롯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양순미(2012)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중국은 이들 5개 아시아권 국가들중에서 주체성 및 자율성을 강하게 내포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가장 높아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보다 용이하게 학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한국어 능력과 공동체 의식 수준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의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한국어 능력과 공동체 의식의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이에 의하면 지역사회활동을 경험한 집단의 한국어 능력 수준, 전체 및 하위영역의 공동체 의식 수준은 이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 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두 $p=.05 \sim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개인의 태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주로 형성되며, 그래서 태도는 경험의 산물이나 사회적 영향으로 태도를 전환시키는 유동성을 포함한다는 주장(김영석, 2005)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활동참여가 결혼이민여성들의 타인과의 상호작용 또는 활동경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은 활동을 경험하지 않은 결혼이민여성들 보다 공동체 의식과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4).

〈표 4〉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한국어능력과 공동체 의식 수준의 t-test 분석

변 인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		t 값
		있음	없음	
		M(S.D.)	M(S.D.)	
공동체 의식	공동체의식 전체	51.96(7.16)	49.33(8.56)	2.89**
	친밀성/소속감 영역	10.02(2.00)	9.48(2.09)	2.38*
	조화/단결 영역	11.63(1.58)	11.15(1.87)	2.57**
	자발적 참여/의사표현 영역	9.65(2.05)	8.93(2.24)	3.02**
	동일시/공과공유 영역	9.79(1.81)	9.33(2.00)	2.18*
	자율성/공공의식 영역	10.87(1.61)	10.44(1.82)	2.26*
한국어 능력		3.67(1.08)	3.10(1.20)	4.48***

*p<.05, **p<.01, ***p<.001

4.4. 한국어능력과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이 농촌결혼이민여성들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

4.4.1. 공동체 의식과 기타 변인들의 상관성

〈표 5〉는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이 인식한 공동체 의식 및 이의 하위영역들, 한국어 능력, 지역사회활동참여경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공동체의식은 한국어 능력($r = .30$)과 가장 높게 상관되었고 이어서 생활수준($r = .22$), 가족 구성원의 수($r = .16$), 지역사회활동 참여 경험($r = .15$) 순서로 유의하게 상관되었다. 또한 공동체 의식과 이의 하위영역들은 $r = .51 \sim r = .86$ 의 상관을 보여 이들 하위영역들이 서로 밀접하게 상관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의 하위영역중 친밀성/소속감 하위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하위영역(조화/단결 영역, 자발적 참여/의사표현 영역, 동일시/공과공유 영역, 자율성/공공의식 영역)도 한국어 능력변인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5〉 공동체의식과 기타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00														
2	.82***	1.00													
3	.76***	.53***	1.00												
4	.86***	.66***	.51***	1.00											
5	.84***	.59***	.52***	.70***	1.00										
6	.80***	.52***	.62***	.58***	.62***	1.00									
7	.30***	.17***	.27***	.22***	.26***	.34***	1.00								
8	.15**	.13**	.12**	.15**	.11*	.11*	.23***	1.00							
9	.10	.04	.10	.02	.07	.18***	.35***	.18***	1.00						
10	-.00	-.06	-.00	-.02	.05	.04	.09	.15**	.21***	1.00					
11	.00	-.01	.00	-.03	.00	.05	.19***	.04	.58***	-.02	1.00				
12	.02	.02	.04	.00	.02	.01	-.03	.15**	-.20***	.13*	-.31***	1.00			
13	.06	.01	.06	.05	-.00	.14**	.39***	.18***	.75***	.26***	.40***	-.19***	1.00		
14	.22***	.19***	.13**	.22***	.17***	.19***	.26***	.13*	.04	.02	-.05	.12*	.03	1.00	
15	.16**	.15**	.16**	.14**	.07	.13*	.13*	.11*	.10	.03	-.08	-.01	.23***	.09	1.00

*p<.05 **p<.01 ***p<.001

상관테이블에 투입된 변인: 1. 공동체의식, 2. 친밀성/소속감 영역, 3. 조화/단결 영역, 4. 자발적 참여/의사표현 영역, 5. 동일시/공과공유 영역, 6. 자율성/공공의식 영역, 7. 한국어 능력, 8. 지역 사회활동 참여 경험, 9. 이민여성 연령, 10. 이민여성 학력, 11. 남편의 연령, 12. 남편 교육수준, 13. 이민여성 거주기간, 14. 생활수준, 15. 가족구성원 수.

한국어 능력 변인은 결혼이민여성의 거주기간과 $r=.39$ 로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이어서 결혼이민여성의 연령($r=.35$), 자율성/공공의식 영역($r=.34$). 전체 공동체의식($r=.30$), 조화/단결 영역($r=.27$), 생활수준과 동일시/공과공유 영역($r=.26$), 지역사회활동참여경험($r=.23$), 자발적 참여/의사표현 영역($r=.22$), 남편의 연령($r=.19$), 친밀성/소속감 하위영역($r=.17$), 가족 구성원의 수($r=.13$) 순서로 유의하게 높게 상관되었다. 즉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의 공동체 의식은 한국어 능력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한국어 능력은 결혼이민여성들의 국

내 거주기간, 연령, 그들 가족의 생활수준, 남편의 연령, 그들 가족 구성원의 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이 가족구성원의 수와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은 가족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개인이 경험하는 관계의 수가 증가하여⁴⁾ 이러한 경험이 결국은 언어능력 향상으로 연계되면서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은 대인간 관계교류의 기간 및 관계의 수적인 특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표 5).

4.4.2. 한국어 능력과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이 공동체 의식 및 하위영역에 미치는 효과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이 인식한 한국어 능력과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인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6), 그들이 인식한 자기 자신의 한국어 능력 수준($\beta = .28$)은 공동체의식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델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beta = .15$)를 나타내다가 한국어능력 변인을 새롭게 투입한 모델 2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소멸하였다.

또한 이를 다시 5개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표 7), 자발적 참여/의사표현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도 지역사회활동 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델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다

4) Duvall은 가족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개인이 경험하는 관계의 수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의 주장에 의하면 가족에서의 개개인의 관계의 수는 다음의 공식으로 산출된다. $X = Y^2 - Y/2$ Y : 가구원의 수, X : 가구원의 수에 따른 관계의 수 (허봉렬, 1997, 재인용).

가, 한국어능력 변인을 새롭게 투입한 모델 2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소멸하였다.

〈표 6〉 공동체 의식에 관련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변인	모델 1	모델 2
	B(β)	B(β)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있음=1)	2.50(.15)**	1.46(.09)
한국어 능력	-	1.90(.28)***
intercept	49.44***	43.51***
F 값	8.49**	19.21***
Adj R-Sq(Adj R-Sq 증가량)	.021	.094(.073)
D-W 계수	1.64	1.64

p<.01 *p<.001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 변인은 한국어 능력변인을 매개로 하여 공동체의식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면서 매개적 효과만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반면에 공동체 의식 하위영역중 자발적 참여 및 적극적 의사소통 영역에는 지역사회활동 경험 변인의 효과가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가 일종의 공익 학교로서 참여과정을 통하여 책임있는 사회적, 정치적 행동이 개발되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증가하며 시민의식과 윤리성이 발달된다는 Rousseau나 Mill의 주장(이승중, 1993, 재인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여러 선행연구(양철준, 2005 ; 유수연, 2004 ; 이지영, 2013 등)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공동체 의식에 한국어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본 연구의 결과는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어 습득을 통해 우리의 농촌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미지 및 질서를 부여 받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문화적으로 사회화되거나 정체성으로 외연화됨

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Peterson, Speer와 McMillan(2008)이 주장한 것 처럼 개인적인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자기의 효능감이 공동체 의식에 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표 7> 공동체 의식의 하위영역에 관련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변인	친밀성/소속감 영역		조화/단결 영역		자발적참여/의사표현 영역		동일시/공과공유 영역		자율성/공공의식 영역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B(β)	B(β)	B(β)	B(β)	B(β)	B(β)	B(β)	B(β)	B(β)	B(β)
지역사회 활동참여 경험 (있음=1)	0.53(.12)**	0.38(.09)	0.46(.13)*	0.25(.07)	0.67(.15)**	0.47(.11)*	0.45(.11)*	0.23(.06)	0.39(.11)*	0.12(.04)
한국어 능력	-	0.27(.15)**	-	0.38(.26)***	-	0.36(.19)***	-	0.40(.25)***	-	0.49(.33)***
intercept	9.47***	8.64***	11.18***	10.02***	8.98***	7.85***	9.34***	8.08***	10.47***	8.94***
F 값	5.50*	6.78***	5.97**	15.09***	7.95**	10.75***	4.63*	13.15***	4.31*	23.19***
Adj R2 (Adj R2 증가량)	.013	.032 (.019)	.014	.074 (.060)	.019	.053 (.034)	.010	.065 (.050)	.009	.112 (.103)
D-W 계수	1.66	1.67	1.74	1.71	1.80	1.83	1.77	1.78	1.63	1.56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언어가 인간정신을 구성하는 개개 관념들의 내용을 표현하는 도구임과 동시에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각과 관념들을 상호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매체(이지영, 2013)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한편 지역사회활동 경험이 지닌 매개적 효과는 河村雲雨(1985; 김경준, 1998, 재인용) 등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써, 은지용(2002)의 연구에 비추어 때 이러한 활동이 공동체의식의 형성과 보다 의미있게 연관되기 위해서는 농촌의 결혼이민여성들이 참여하는 교육, 봉사 등 다양한 활동들이 그들과 타인과의 관계를 촉진하고 재설정

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한국어 역량을 향상하고 강화하는 쌍방향적 기능구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5.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 공동체의 결속력과 일체감을 향상하고 결혼이민여성들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는 대안적 방안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통합 및 정체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는 공동체의식에 그들의 한국어 능력 및 지역사회활동 경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이 인식한 한국어 능력과 지역사회활동 경험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위계적으로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한 결과, 한국어 능력 수준($\beta = .28$)은 공동체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5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띄었다. 이러한 결과는 Peterson 등(2008)의 주장과 유사한 결과로써, 언어가 인간정신을 구성하는 개개 관념들의 내용을 표현하는 도구임과 동시에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각과 관념들을 상호 전달하는 매체로 작용하는데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볼 때 농촌의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어 습득에 의해 우리의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미지 및 질서, 정체감을 문화사회화 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매카니즘들이 개발되고 교육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이들에게 한국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교육에 연계해 한국어 습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시스템들이 개발·확충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위계적인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결과에 의하면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은 한국어 능력변인을 매개로 하여 공동체의식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면서 매개적 효과만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다시 5개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자발적 참여/의사표현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도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 변인이 공동체의식에 대해 매개적 효과만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이 보다 의미있게 공동체의식의 향성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사회활동이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타인과의 관계를 촉진하고 재설정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한국어 역량을 향상하고 강화하는 쌍방향적 기능구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참여가 지닌 일종의 공익학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책임있는 사회적·정치적 행동을 개발하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증가하며 건강한 시민의식과 윤리의식이 발달할 수 있도록 일회적인 행사나 참여를 지양하고 체계적으로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양순미, 2006)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이 인식한 공동체 의식수준은 한국어 능력($r=.30$)과 가장 높게 상관되었고 이어서 생활수준($r=.22$), 가족 구성원의 수($r=.16$), 지역사회활동 경험($r=.15$) 순서로 유의하게 상관되었다. 한편 공동체 의식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인 한국어 능력 변인은 결혼이민여성의 거주기간($r=.39$), 결혼이민여성의 연령($r=.35$), 생활수준($r=.26$), 지역사회활동경험($r=.23$), 남편의 연령($r=.15$), 가족 구성원의 수($r=.13$) 순서로 유의하게 상관되었다. 특히 한국어 능력수준과 가족구성원의 수 변인에서 밝혀진 유의한 상관성은 Duvall(허봉렬, 1997)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써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수준이 대인간 관계교류의 기간 및 관계의 수적인 특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내·외적

인 관계를 증가하는 차원에서 마을 공동체 행사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마을 리더들의 역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의 출신국별 공동체 의식의 수준은 중국이 가장 높은 반면 일본이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5개 하위영역중 친밀성/소속감 영역, 자발적 참여/의사표현 영역, 동일시/공과공유 영역의 공동체 의식은 일본이 가장 낮았으며 조화/단결 영역의 공동체 의식은 필리핀이, 자율성/공공의식 영역의 공동체 의식은 캄보디아가 가장 낮았다. 반면에 5개 모든 영역에서 중국은 가장 높은 공동체 의식 수준을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p=.05 \sim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러 선행연구결과(양순미, 2012; 유수연, 2004)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중국인 결혼이민여성들이 조선족 출신이 주류를 이루어 이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이 다른 출신국의 결혼이민여성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문화사회화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는데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출신의 결혼이민여성들은 이들 5개 아시아권 국가들중에서 주체성 및 자율성을 강하게 내포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가장 높아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보다 용이하게 학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문화적 이질성이 보다 큰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한국어 문화를 습득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다양하게 확충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의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한국어 능력과 공동체 의식 수준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활동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 보다 한국어 능력 수준과 공동체 의식 수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영석(2005)이 주장한 것 처럼 결혼이민여성들이 경험한 지역사회활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또는 그들의 활동경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들의 사회통합 및 정체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온 공동체의식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그들의 한국어 언어능력이 공동체 의식에 작용하는 직접적인 효과와 지역사회참여활동이 갖는 매개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한국어 언어능력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역동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매커니즘을 규명하는 작업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 문헌 ■

-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 권순희. (2009).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국어교육학연구*, 34호, 57-115.
- 김경준.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주관. (2007). 언어를 통한 문화교육(1): 민족과학방법의 적용. *언어와 문화*, 3(3), 105-126.
- 김주관. (2008). 언어를 통한 문화교육(2):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방법의 적용. *언어와 문화*, 4(1), 129-150.
- 김충련. (1993). SAS라는 통계상자-통계분석 및 시장조사기법을 중심으로. 데이터플러스.
- 김영석. (2005). *설득 커뮤니케이션*. 나남출판.
- 김현주, 전광희, & 이해경. (1997). 국내 거류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연결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학회*, 40, 105-139.
- 신승국. (1994). 한국인의 공동체의식 형성과 제고 방안. *용인대학교 논문집*, 10, 123-136.
- 양순미. (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순미. (2006).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적응정책의 모색. *한국사회정책연구*, 5(25), 111-128.
- 양순미. (201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집단주의 성향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국 중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329-345.
- 양순미. (2013). 농촌 다문화의 문화적 통합전략에 대한 탐색 연구. 농촌진흥청 2013년 농업공동연구 보고서(미간행).
- 양순미, & 유영주. (2002). 농촌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역할 기대, 역할수행평가, 역할상이성이 결혼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75-91.
- 양순미, & 정현숙. (2005).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종단적 비교연구. *한국가족관*

계학회지, 10(3), 27-46.

- 양순미, 최규홍, & 강경하. (2009).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참여활동 실태 및 이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화 ;농업·지역사회·취업활동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6, 713-742.
- 양철준. (2005). 케냐 나이로비 거주 인도계 이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의 언어 사용과 태도에 나타난 종족적, 종교적, 사회적 정체성의 인식, 수행 교섭과 전승. *아프리카연구*, 18, 53-104.
- 연합뉴스. (2014). 농촌주민 언어는 한국어, 음식은 다문화형 선호(2014. 1. 16).
- 유수연. (2004). 문화간 의사소통 충돌의 원인-언어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8(1), 395-414.
- 은지용. (2002). 청소년봉사활동 반성경험이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승중. (1993).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서울: 삼영.
- 이지영. (2013). 스피노자-언어의 힘과 공동체. *철학연구*, 126, 295-320.
- 이혜영. (1997). *공동체적 사회연대 구축을 위한 품성교육의 방향*. 교육사회학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희섭. (1987). 19세기 한국의 사회계층과 근대화 지향의 사회운동. *인문논집*, 32, 191-204.
- 윤인진, & 김은비. (2012). 다문화가족의 언어 사용과 아동의 사회정체성. *이중언어학*, 48, 273-307.
- 정진경. (1999). 한국 공동체 의식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19-30.
- 최영아. (2005). 지역사회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과 참여의식 함양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봉렬. (1997). *건강가족 실천운동의 방향과 과제*. 건강가족상 정립을 위한 워크샵.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Frank, Van T. & Matthijs, K.(2009). Language proficiency and usage among immigrants in the Netherlands: Incentives or Opportunit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2), 169-182.

- McMillan, D. & Chavis, D. M.(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a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Mannarini, T. & Fedi, A.(2009). Multiple sense of community: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2), 211-227.
- Obst, P. & Smith. S. G. (2002). An exploration of SOC, part 3 dimension and predictors of psychological SOC in geographical communiti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1), 119-133.
- Peterson, N. A., Speer, P. W., & McMilan, D. W., (2008). Validation of a brief sense of community scale: Confirmation of the principal theory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1), 61-73.

Received 24 September 2014; Revised 17 October 2014; Accepted 11 November 2014

Effect of the Level of Proficiency in Korean Language and Experience in Local Society Activity Influencing Community Sense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n Rural Areas

Soon Mi Yang

Divi. of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of the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i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bstract

Language is connected with culture, and have a function of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Also social participation is known to conduct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identity of immigrant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variables such as the level of proficiency in Korean language, and experience in local society activity on community sense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n rural areas. The result showed that the level of proficiency in Korean language had the greatest effect on their sense of community, and experience in local society activity seemed to have intermediation effect on it.

In conclusion, based on results of this study, plans improving proficiency of Korean language of the immigrants and participation in local society activities were suggested.

key words : community sense, language, married immigrant women, rural, local society activity



Yang Soon-mi is a research worker and specialist at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NAAS) i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where she has study the rural families since 1995. Her research interests, since 2005, is concentrated on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ddress: (565-851)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Republic of Korea.

e-mail) ysm@korea.kr, phone) 82-63-238-2646